

맑은정치여성기금운동본부와 여성신문사가 함께 하는

“맑은정치 희망지기 2004인, 모여라 모여라!” 언론공동캠페인

- 17대 총선을 앞두고 비리국회를 갈아엎고 맑고 투명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또다른 유력한 대안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가 시대적 요구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총선여성연대,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여성의 정치세력 활성화를 위한 ‘맑은정치여성기금운동본부(이하 맑은기금본부)’를 발족했다. 여성신문사에서는 2004년 4월 15일, 17대 총선까지 총 11회에 걸쳐 맑은기금본부와 여성의 정치세력화 확대 방안에 관한 다양한 기획 기사를 실을 예정이다. 그 첫 번째로 맑은기금본부에 대한 소개와 향후 활동에 대해 신는다.

1차 : 맑은정치여성기금운동본부 소개 및 향후일정

제목 : 맑은정치 희망지기 2004인을 모십니다!

필자 :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맑은정치여성기금운동본부 공동위원장)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부패정치, 대선 비자금비리, 당리당략에 빠진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가 적극적인 지지당선운동, 유권자운동으로 번져가고 있다. 더불어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는 이미 유럽을 비롯한 세계적인 추세이고,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여성들의 도덕성도 각국의 사례를 통해서 검증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여성들의 정치참여 확대는 정치개혁과 맑은 정치를 구현할 또하나의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모범적이고 깨끗한 정치기금모금 캠페인을 벌이고, 동시에 효과적이고 투명한 모금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세력 확대를 위한 제반 여성단체활동과 유권자운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전여성계가 연대하여 맑은정치여성기금운동본부를 세웠다.

1. 맑은정치여성기금운동본부란?

1) 맑은정치여성기금운동본부 조직

맑은정치여성기금운동본부는 2004년 총선기간 동안 총선여성연대(약 322개

후원

참가단체),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약 80여명의 위원), 한국여성재단 등 범여성계가 연대하여 여성정치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한시적인 기금운영본부이며, 한국여성재단내 기금조성 특별기구로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윤후정(전 여성특위 위원장), 강원용(목사, 평화포럼 이사장), 김현자(전 한국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 김모임(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 장상(전 이화여대 총장), 문국현(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서경배(태평양 대표이사), 김영정(전 정무장관), 김순진(21세기 여성CEO 모임 대표), 정희경, 강기원 등의 공동위원장(섭외 중 2월2일까지 확인)을 모시고 이번 2004년 2월11일 발족했다.

2) 맑은정치여성기금 캠페인

· “맑은정치 희망지기 2004인, 모여라 모여라!” 캠페인

2004년 17대 총선을 계기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맑은 정치, 생활정치를 실현하려는 명예로운 시민 2004인을 세우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friend-raising 캠페인이다. 2004는 2004년을 의미하며, 2004인이 낙후된 정치(특히 여성정치연도)를 2004년으로 끌어올리고, 앞으로 이끌어갈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 맑은정치 희망지기 2004인이 되는 방법

거리에서, 홈페이지를(www.cleanfund.org)를 통해서 소정의 기부금을 납부하면 희망지기가 되며, ‘17대 국회에 바란다’ 선언문에 자동으로 이름(또는 단체명, 가명 등)이 서명된다.

· 맑은정치 희망기금

74102

희망지기들의 기부금은 맑은정치를 실현하는 모든 활동(깨끗하고 개혁적인 여성후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당선운동을 위한 제반 여성단체 활동과 유권자운동, 여성관련 정책 및 법안 발굴·제안하는 활동지원)에 쓰이게 될 맑은정치여성기금으로 적립된다. (* 모든 기부금은 영수증 처리를 하고,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맑은정치여성기금운동본부의 이후 활동

맑은기금본부에서는 여성정치기금모금의 필요성에 대해 일반시민들과 원활하고 유기적인 의사 및 정보교류를 도모하고, 자연스러운 기부문화의 확산과 다

양하고 보다 폭넓은 시민들의 기부참여를 위한 사이버캠페인(www.cleanfund.org)을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신문사와 공동으로 벌이는 언론공동캠페인, 낙후된 정치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정치비자금 비리로 얼룩진 기업들에게 신선하고 투명한 정치기금모금의 모델을 세워줄 기업공동캠페인, 2월 말 예정인 기금마련을 위한 여성한마당, 3월 중 예정인 여성정책 공약개발 세미나 및 포럼 개최, 여성후보 서포터즈 모집 및 활동 등 더 많은 여성후보들의 정계진출과 여성의 정치세력화 확산을 위한 제반 사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그 끝이 안보이는 온갖 비리로 얼룩진 남성 위주의 절름발이 정치, 우리의 어린 딸들에게 역할모델이 될 수 있는 자랑스런 여성정치인의 부재는 우리의 부끄럽고 아픈 정치현실이자, 끝없는 정치비리를 잉태해 내는 근원이다.

미래를 위한 힘찬 전진의 원년 2004년을 맞이하여, 21세기에 걸맞는 정의로운 정치, 평등한 정치, 맑고 깨끗한 정치의 구현이야말로 제 몫의 정치세력을 가진 여성이 국회에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제 몫의 역할을 해 낼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런 일들의 실현을 위해 이제 맑은정치여성기금운동본부에서는 17대 국회의 탄생과 함께 희망의 정치를 실현해줄 것을 선언할 명예시민 2004인을 모신다. 2004인이야말로, 2004년이야말로 희망정치, 깨끗한 정치, 삶의 정치를 태동해 내는 찬란한 아침의 대지이기 때문이다.